

중국의 아마추어용 사진시장 및 기타 광학기기 시장 동향

편집자 주

현재 중국의 사진 필름 시장은 1인당 연간 필름 소비가 0.1롤 수준임을 기초로 할 때 전문가들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디지털카메라의 보급 및 메이커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 체제로 인해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안경의 경우 중국 제조 회사들은 지난 몇 년간 쌍안경의 수출 가격을 1/3 정도 인하했고 현재로서는 판매 가격이 생산 원가 수준에까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 조치 단행은 힘든 상황이다. 대신 업체들은 대내외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에 신제품을 발매하기 위해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에서의 아마추어용 사진 필름시장과 고전적인 광학기기인 쌍안경, 망원경, 분광기, 확대경, 현미경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사진 필름 부문(칼라, 흑백, 즉석) 시장 동향

중국의 카메라 필름 산업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몇몇 핵심적인 필름 메이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연간 필름 소비량이 0.1롤이라는 수준을 기초로 할 때 미국의 1인당 연간 필름 소비량 3.6롤과 유럽의 3.1롤 수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전문가들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닥 및 후지필름 등과 같은 외국계 필름 제조회사들은 중국 내에서 매우 탄탄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닥에 있어 중국은 오늘날 미국의 뒤를 이어 2번째로 규모가 큰 국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할 때 2010년 경에는

중국이 코닥의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리라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70% 수준에 비해 전체 중국 가구 중 단지 15%만이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필름 시장은 코닥, 후지필름 및 중국 현지 중화럭키필름공사(China Lucky Film Corporation) 등과 같은 3대 주요 업체들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1958년 설립된 중화럭키필름공사는 중국 최대의 감광 재료 및 자기 녹화 매체 제조회사로서 약 15% 상당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럭키사의 본사는 베이징(북경)

에서 약 150 킬로미터 떨어진 허베이성(하북성) 바오딩(보정)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코닥은 거의 50% 수준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유(2000년 기준)하고 있는 사진 필름 업계의 시장 선도 업체로서 후지 필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놀라운 업적 신장은 중국 정부와 체결한 코닥의 1998년 협약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후지필름은 약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닥 및 중국 정부 당국 간의 '협상 거래'에 의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코닥의 1998년 협약이 2001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후지필름은 시장 점유율을 다시 증대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 유통망의 확충 및 상이한 형태의 합작 기업을 설립하는 동시에 코닥의 독주를 견제하고 과거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렉키와 전략적 제휴 협상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필름 생산 설비는 대규모 업체들이 자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국 남부 및 중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코닥 최대의 필름 생산 설비는 푸젠성(복건성) 샤먼(하문) 지방에, 후지필름의 생산 현장은 광둥성 주하이(주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으며, 렉키는 허베이성(하북성) 및 허난성(하남성) 지방에 2개의 대형 생산 설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별 필름 구매 실적은 중국 카메라 보급 현황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코닥, 후지필름 및 렉키는 자체 전문 매장을 통해 회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코닥은 6,000개 이상, 후지필름은 3500개 이상, 그리고 렉키는 2500개 이상의 전문 매장(특약점 포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기타 유통 채널 중에는 노상 매점,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 시장 조사 자료에 의하면, 코닥은 2001년 2월 기준 관세 60% 및 부가세 17%를 포함, RMB 17 위안(USD 2.0 달러)의 판매 고시가를 기준으로 판매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해 주었으며, 후지필름은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한 롤당 RMB 18.5 위안(USD 2.2 달러)의 가격으로 필름을 판매하도록 각 소매점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후지의 실제 판매 가격은 시장에서 RMB 13 위안까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후지필름 중국 본사도 이토록 낮은 가격 조건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지난 수년동안 사진용 필름은 중국 최대 필수 품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었으며, 이 필수 필름의 도매 가격이 RMB 7.4 위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후지 필름의 시장 가격 또한 약 RMB 13 위안 수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렉키는 중국계 제조회사로서 도매 가격을 약 RMB 9 위안 수준으로, 그리고 소매 가격은 약 RMB 13 위안 수준으로 책정하여 제품을 판매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에서 사진 필름을 구매할 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렉키가 15% 수준의 시장

표 1. 중국의 필름 수출입 현황(2000년 기준)

1. 사진 필름 수출 현황

| 제품 유형 | 수량 | 단위 | USD 금액 |
|------------|---------|----------------|-----------|
| 사진 필름 (평판) | 145,543 | kg | 5,635,000 |
| 사진 필름 (롤형) | 42,954 | m ² | 1,039,000 |
| 사진 필름 (롤형) | 78,980 | 개 | 347,000 |

2. 사진 필름 수입 현황

| 제품 유형 | 수량 | 단위 | USD 금액 |
|------------|-----------|----------------|------------|
| 사진 필름 (평판) | 1,066,733 | kg | 30,105,000 |
| 사진 필름 (롤형) | 1,889,140 | m ² | 2,981,000 |
| 사진 필름 (롤형) | 1,954,472 | 개 | 1,282,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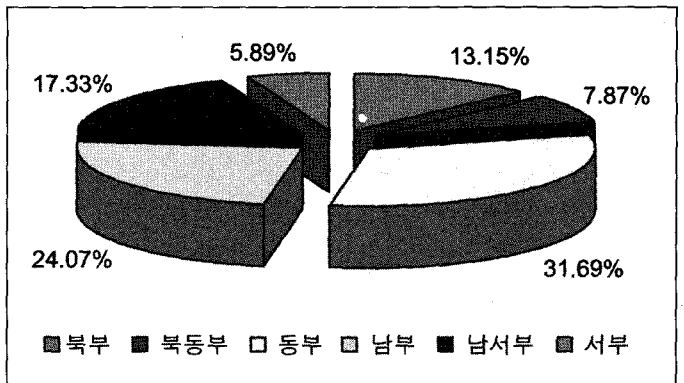


표 2. 각 지역별 사진 필름 구매 현황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조건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 러키만이 유일한 중국 브랜드이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의 약간의 '애국적 지원'에 힘입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진 필름 시장은 극심한 가격 경쟁 체제뿐만 아니라, 그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작가

중국정부와 코닥과의 '1998년 협약'

코닥은 1998년 외국 기업들이 3년간 중국 사진용 필름 시장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협약을 중국 정부와 공식 체결하는 조건 하에, 사진용 필름 산업에 USD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동시에, 재무적 문제에 직면한 지방 정부 소유의 국영 필름 제조회사 3개를 공동 출자 형식으로 인수하기 위해 USD 3억7천5백만 달러를 추가 출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1998년 협약'을 통해, 코닥은 중국 내 자체 사무소와 생산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필름 제조 산업 분야에 있어, 중국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코닥의 전략적 성과로 인해 후지필름은 약 25% 수준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말았다.

2. 쌍안경, 망원경, 분광기, 확대경 및 현미경 시장 동향

중국의 쌍안경 및 망원경 공급 회사들은 광학 기술 수준이 외국 제조회사들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동향은 2001년과 비교해 안정적인 기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중국의 쌍안경 및 현미경 수출입 현황(2000년 기준)

1. 수출 현황

| 제품 유형 | 수량 | 단위 | USD 금액 |
|-------|------------|----|-------------|
| 쌍안경 | 15,173,828 | 개 | 116,905,000 |
| 현미경 | 128,643 | 개 | 2,940,000 |

2. 수입 현황

| 제품 유형 | 수량 | 단위 | USD 금액 |
|-------|--------|----|-----------|
| 쌍안경 | 68,332 | 개 | 253,000 |
| 현미경 | 1,715 | 개 | 5,511,000 |

중국의 생산 라인은 거의 모두 야외 활동용 쌍안경 제작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최근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2차 제품 라인은 선물용으로 적합한 일회용 모델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 및 항해용 망원경 이외에도 단안경 및 현미경이 광범위하게 제작되고 있다.

중국의 쌍안경 제조회사들은 대부분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 국내 카메라 생산업체중 하나인 피닉스광학은 이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산 브랜드는 통상적으로 중국 및 홍콩의 판매 대리점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 브랜드 중에는 캐논, 스타이너, 비비타 및 니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닉스는 단안경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현미경 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확대경(돋보기) 시장은 아래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국 현지의 소규모 업체들에 의해 거의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 Guotai Huahai Trading Company는 몇몇 상이한 모델의 확대경을 생산하고 있다.
- Jinn Lighting Co., Ltd.은 전자, 의료, 미용, 장식 분야와 시각 장애자들을 위해 매우 다양한 형식의 확대경을 제공하고 있다.
- Ritek Electronics Co., Ltd.는 주요 거래처에 각종 확대경 램프를 개발 공급하고 있다.

중국산 쌍안경, 망원경 및 현미경의 핵심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시장은 홍콩, 독일, 일본 및 프랑스 등지이다. 중국 제품은 현재 70여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불가리아, 멕시코,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스리

랑카 및 아일랜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35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쌍안경 및 망원경을 제작 또는 수출하고 있다. 대다수 중국 회사들은 아직도 정부 당국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단지 몇몇 소수의 회사들만이 민간 기업이나, 합작 회사 및 공동 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 현실이다. 쿤밍(곤명) 시는 중국 최대의 쌍안경, 망원경 및 기타 광학 기기 생산지로, 약 20여개 이상의 전문 경험(40년 이상의 사업) 기반을 갖춘 기업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으며, 기타 생산 중심지로는 충칭직할시(중경직

할시), 쓰촨성(사천성), 허난성(허남성) 등이 있다. 중국계 현미경 제조회사들은 주로 저장성(절강성), 선전(심천) 및 장쑤성(강소성) 등지에 소재하고 있다. 쌍안경은 중국 현지 판매 대리점들을 통해 각지로 유통 공급되고 있다. 중국 제조 회사들은 지난 몇 년간 쌍안경의 수출 가격을 1/3 정도 인하하였다. 현재로서는 판매 가격이 생산 원가 수준에까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제조 회사들은 더 이상의 가격 인하 조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대내외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에 신제품을 발매하기 위해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있다.

늘 곁에 있어 소홀하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잠깐!

'광학세계'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유일한 전문지로 태어난 지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지원과 보살핌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광학세계'는 부족하나마 광산업 각 분야별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신기술을 소개하고 학계 및 연구계와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만들면서 광학인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분의 관심이 부쩍 줄어 안타깝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것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이, 혹시 너무 오랫동안 쉽게 접할 수 있는 '광학세계'였기에 소홀하지는 않으신지요? 독자여러분의 우송료 납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 하나, 우송료 12,000원을 내주세요 | 둘, 원고 투고를 기다립니다. |
|--|--|
| <p>'광학세계'는 1년 우송료 12,000원 외에 따로 책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정기구독자가 우송료조차 납부하지 않는 '무료 독자'입니다.</p> <p>'광학세계'는 순수하게 광고비로만 발간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고도 급격히 줄어 우송료마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송료 납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입금후에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p> <p>■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4-01-0156-856 ■ 예금주 : 한국광학기기협회</p> | <p>'광학세계'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원고 기고, 기획 제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 기고-논문, 국내외 신기술·동향, 전시회 참관기, 연수기, 수필 등 2. 추천-모범사원을 추천해 주세요, '이달의 광학인'에 선정,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3. 기획 제안-원고 내용이나 편집에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광학세계」 편집부

- 주소 : (137-842)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2-5 백산커뮤니티빌딩 4층 한국광학기기협회
- 전화 : (02)581-2321 • 팩스 : (02)588-7869 • 이메일 : pjy@koia.or.kr